

## 호남정치 복원 시동 걸렸다

/ 뉴스 분석 / 지방선거 후 정치지형 변화

민주 당대표 지역출신들 출사표... 지역 국회의원 역할 커져

6·13 지방선거로 재편된 호남 정치권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정치 복원'이라는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호남정치'란 호남인이 주체가 돼 호남의 가치와 실리를 실현하는 정치로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호남정치의 복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호남정치인의 정치적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호남 정치권력의 교체=2016년 20대 총선에서 불었던 국민의당 바람은 호남의 실리에 대해 무관심한 민주당에 대한 경고였다. 6·13 지방선거는 2년 전 민의정체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호남의 가치실현에 소홀했던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호남정치의 미래 비전과 인물을 만들지 못한 것은 물론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

가치의 실현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 압승은 호남정치권력의 주도세력을 평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꿨다. 의원 숫자로는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많지만, 의미있는 정치권력은 민주당에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호남에서 발을 딛고 정치하는 민주당 소속 정치권력들과 국회의원들은 호남정치 발전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갖게 됐다. 특히 단 3명 뿐이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중앙과 지역을 오가면서 호남정치를 다시 일으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과 예산을 따오는 것은 물론 중앙정치 무대에서 호남정치인의 품격 높은 의정활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로 호남 중진 정치인들을 넘어서는 정치력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 것을 요구받고 있다. 나아가 유능한 정치신인을 발굴, 호남정치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역할의 첫 무대는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선택을 주도할 이들 의원의 역할이 호남정치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당은 다르지만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중진의원들의 행보도 호남정치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다. 평화당 관계자는 "호남 중진 정치인들이 본인의 입지에만 연연하지 않고 지역 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해 정치력을 보여준다면 본인도 살고 호남정치도 사는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향 정치인들의 과제=호남 출신 수도권 정치인들의 역할도 막중하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호남 현직인은 물론 출향 인사들도 한국정치를 이끈 주요 세력이었

기 때문이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호남정치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도 출향 정치인들의 도전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향출신으로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4선의 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 도전에 나섰고, 역시 목포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재선의 전혜철 의원도 전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또 아버지의 고향이 화순인 최재성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범진문 세력에 속하는 송 의원은 특히 호남 정치 부활을 내세우고 있어 앞으로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전·최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로서, 두 의원의 역할에 따라서는 호남정치의 복원에 큰 힘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3명의 의원이 전대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모르지만 당 지도부로 들어가서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극복하고 호남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경우 호남정치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지 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용섭 광주시장 "도시철도·공항 문제 해법 찾겠다"

김영록 전남지사 "낙후 해결·일자리 도지사 되겠다"

민선 7기 시대 공식 개막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휘하는 민선 7기 시대가 2일 공식 개막했다. (관련기사 3면)

이용섭 시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결재로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안'과 '문화경제부시장 임용 계획'에 서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일자리와 인구 문제에 방점을 찍어 일자리정책본부·인구청년정책관 신설 등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진용을 갖추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정책 결정·집행·평가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주시 일자리위원회는 노·사단체 대표, 청년·여성·어르신 등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등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시장은 "최고의 광발전 정책이자 복지정책인 광주지역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 일자리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경제부시장 인선도 탄력을 받고 있다. 민선 6기 정무부시장 인선 절차가 최장 42일에 달해 이를 간소화 해 조만간 문화경제부시장을 뽑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 시장은 "기존 경제부시장 직위를 문화경제부시장으로 개편하고 문화경제부시장을 조기 임용하는 계획을 결

재했고,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도시철도 2호선, 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찬바람이 불기 전에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첫 비서실장으로 김종화 체육진흥과장을 2일자로 임명했고 정무특보에 김이강 광주혁신위원회 비서실장을 내정하고 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낙후된 지역경제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 도민의 간절한 여망이었다"면서 "일자리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청 기차실에서 취임 간담회를 하고 조직개편 등 도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 7기는 경제가 대단히 중요한 만큼 정무부시사는 일자리를 만들고 중앙과 연계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각 부처와 협력할 수 있는 인사를 개방형으로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부지사 명칭은 그대로지만,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부지사 역할을 중점적으로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초대 비서실장에는 소영호 고흥부군수를 내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동안 국경급 임시조직이었던 일자리정책실을 일자리정책본부로 공식 조직화하고 최선임 국경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일자리 관련 업무를 종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준국장급(4급) 인구청년정책관을 신설해 대처하고, 2030년까지 200만 도민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쁘라삐룬 일본 쪽으로 전남 직접영향 벗어나 일부 지역 집중호우

제7호 태풍 뿌라삐룬(Prapiroon·신의 비)이 애초 여수지역을 관통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동쪽(일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전남 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비 구름을 머금은 태풍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돌풍을 동반한 집중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주말·휴일에 이어 2차 호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뿌라삐룬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서귀포 남쪽 약 56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km 속도로 북상 중이다. 기상청은 태풍이 예상과 달리 초기 발달 과정에서 느린 진행속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부근 상층 기압계의 변화된 흐름을 따라 예상 진로보다 동쪽으로 쏠려 3일 오후 부산을 거쳐 4일 독도 인근으로 동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3일 태풍의 간접영향권에 든



2일 보성군 회천면 봉강마을 농로가 폭우로 유실돼 콘크리트 구조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보성에는 지난 1일 내린 비로 보성여중 일부 건물이 물에 잠기고 회천면 모원저수지 둑이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보성=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은 돌풍과 함께 20~60mm의 비가 내리고, 지리산 인근 전남 동부지역에는 8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남 서부지역은 예상보다는 비가 비교적 적게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파도가 일면서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침수피해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최진석의 老莊의 생각  
- 적후지공(積厚之功)과 자유 ▶18면

메이저 켈  
환상의 로브샷  
KPMG 챔피언십  
박성현 우승 ▶21면

**식습관 바로잡고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비타민 C  
50.4g [560mg X 90정]

V-B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이제, 하루 한 번 메타그린 습관도 시작해보세요.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줘 무너진 신진대사를 바로잡아줍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